

# “좋은 책 만들고 싶어 좋아서 출판한다”

## 중국어 명저 ‘문예신서’ 등 안팔리는 책 고집하는 東文選

인사동 학교재 화랑 맞은편의 허름한 건물 3층에 자리잡은 출판사 東文選은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의 느낌이 대체로 그러하듯 컷인 상에 다소 귀기가 서려 있다. 중국서적을 파는 2층 서점을 지나 출판사가 있는 3층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좁은 계단을 오르며 수없이 만나야 하는 겹겹의 연극포스터며 전람회 팸플릿은 한때 고서점과 출판사들이 밀집해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인사동의 옛 영화를 우물하게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런 ‘역사’의 인사동에 “이런 서점이 하나쯤은 버티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쪼들리는 형편에 더이상 서점과 출판사를 분리해둘 수 없어 올 여름 편집실을 용산에서 여기로 옮겼다”는 신성대씨가 운영하는 동문선이 있다. 중국문화나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두루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출판사의 붉고 검은 원색의 표지장정을 기억할 것이다. 문예신서라는 이름의 이 시리즈는 벌써 60여종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100종을 쉽게 채우게 된다. 외항선을 타던 독특한 이력의 젊은 사장처럼 도무지 나이를 먹을 것 같지 않던 이 출판사도 올해로 벌써 열 살이 된다.

### 미래 한국 ‘동양학의 산실’

2층 서점에 1명, 용산 영업부에 3명, 편집부에 신사장을 포함해 4명 등 동문선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모두 8명이다. 4명의 편집실 사람들은 한달에 평균 한권씩의 책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책만들기 작업은 하나가 교정이 끝나갈 무렵이면 하나는 원고정리에 들어가는 등 서로 맞물려 돌아가므로 한 책이 시작에서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탄생될 때까지는 짧아야 1년,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 넘어 걸리기도 한다. 교정 한번 표지디자인 한번 외부에 맡겨본 일 없이 편집부 내에서 다 소화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자연 더딜 수밖에 없다. 효율적이기로는 외주를 주면 편하겠지만 그것은 돈문제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손질하겠다”는 편집부원들의 고집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문예신서의 경우는 표지며 내지의 레이아웃까지 통일된 일정한 모습이다. “대다수 중국책이다보니 벽자도 많고 도판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제작의 고충인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는 글자는 중국에 있는 그 출판사에 가 필름으로 직접 떠오기도 하고 도판 하나를 얻기 위해 비싼 책을 사들이는 일도 부지기수다. 신사장이 90년 가



동문선 사람들.

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도서 전문서점을 내었던 것도 그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쪽의 출판을 본격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뜻도 있었다. 동문선에서 내는 책의 목록은 이 서점의 덕이 크다. 주문용으로 들어오는 목록을 훑어보고 널 만한 책을 고르는 것이다.

이 출판사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출판물이 되어버린 문예신서 외에도 「토폴 최종 분석」과 같은 영어책도 있고 「들개」 「꿈꾸는 식물」 「벽오금학도」 등 이외수의 책으로 대표되는 문학류도 적잖은 종수가 있다. 그 문학류에는 조병화씨의 시집도, 이름없는 작가의 수필집도, 르 클레지오의 「홍수」도 「중국기공체조」 같은 책도 있어 이 목록에서 하나의 특색을 읽기란 어렵다. 이 ‘중구난방’의 목록을 두고 사장 신성대씨는 “그저 해보고 싶어 출판에 뛰어들었다가 민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난 후” 호구지책으로 간신히 버티던 시절의 것이라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했다.

### 적어도 ‘문예신서’는 읽어야 ‘교양인’

이 출판사가 분명한 색을 가지며 색 짙은 출판사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것은 이 출판사의 얼굴인 문예신서가 그 종수를 채워가는 것과 비례한다. 그 책들은 대체로 만다라, 여신, 曆, 占, 원시불교, 갑골, 미학, 氣 등과 같은 동양의 체취가 듬뿍 묻어나는 책들이다. 「神의 起源」(何新) 「道敎와 中國文化」(葛兆光) 「중국고대사회」(許進雄) 「武藝道譜通志」 「꿈의 철학」(劉文英) 「중국예술정신」(徐復觀) 등이 이 출판사가 첫손꼽는 책들.

문예신서 가운데 “잘 팔리는 책이다” 하면

## 훗날 헌책방에서도 팔리는 책이기를

### 신성대

동문선 대표

우리가 안팔리는 ‘문예신서’ 류의 책을 강행하자 어떤 이들은 “뒤통을 대주는 든든한 물자가 있나 보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전혀 아니다. 여태까지 3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지만 그것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든 우리는 “좋은 책을 내고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애초부터 이 기획은 “좋은 책은 팔리지 않는다”는 우리 출판가의 속설에 정면도전해 보겠다는 오기에서 출발했으니까.

문예신서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문사전의 절대적 부족이었다. 결국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운 기획이 시작된다. 「민속예능사전」 「복식사전」 「무술사전」 「주역사전」 「도교사전」 등 전문사전을 연간 3~4종씩 만들 예정이며, 그중 몇몇은 작업중에 있다.

우리가 널 책을 고르는 기준은 “대학을 나오고, 적어도 스스로를 지식인 또는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펼쳐보고 지나가야 하는 책”들이다. 어

한 5000부 정도 나갔다는 말이다. 여태까지 네댓권만 재판을 찍었는데, “지독히도 안팔린다”는 얘기가. “그럼 무엇으로 운영하느냐”는 말에 초창기에 인연을 맺어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만 작가 이외수씨나 시인 조병화씨, 고문으로 있는 민속학자 심우성씨 등이 “인세같은 건 신경쓰지 말고 잘 해보라”며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준다. 사장 신성대씨도 그렇고 東文選 출판물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돈문제로 까다롭게 따지고 드는 것에 질색한다. 동문선의 역자들이 새로운 면면들이 많고 같은 이들이 반복되는 것은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지금의 고생을 보상받자며 “그저 이런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좋아 의기투합”하였기 때문이다.

— 정혜옥 기자



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안목을 지닐 수 있는 교양서를 고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분야, 팔리든 안팔리든 꼭 필요한 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필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중을 두지 않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다 나은 원고를 고른다. 학문에 국적을 따지기를 싫다. 학문에 있어서의 국산품 애용은 열등국민으로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또한가지 각오는 20, 30년 후에 헌책방에서도 제대로 대접받는 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훗날 헌책방에서 한권 더 팔려나가 ‘2차 생산’을 해내는 책들 말이다.